

친구끼리 세 번째

가족 이야기



친구끼리는
중앙 동아리 우리역사회에 있는
어상희 소모임입니다.

권득시

너에게 가지 있는 것은 나의 희생이어라

너는 내 손으로 빵을 만들어 주기를 마라느냐
내 머리 속의 보석을 썩혀 두고 어리숙한 손을 사용하여
너를 위한 빵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구나

자기 머리 속은 갈고 닦아 다이아몬드로 팔아먹고 싶어하면서
내 머리 속 보석은 가치 없다 하느냐
너에게 가지 있는 것은 서툰 내 손으로 빚은 빵이더냐

너는 왜 나에게 비참하게 살 것을 강요하느냐
나는 이제 너의 재롱 보는 것도 지쳤다

너에게 가지 있는 것은 나의 희생이어라
어쩌면 똑같이 하느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들은 딸에게 희생을 노래하라 강요하느냐

신정모라의 「시인은 무엇을 보게 하는가」 중

권두사

이제 우리역사회의 성차별적 문화, 성담론들은 그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구성원간의 합의에 이르게 되면 무엇이든 폐기될 수 있게 되었고 대안적으로 자유롭고 억압적이지 않은 성담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95년 [친구끼리]가 처음 생겨날 때 지적되었던 동아리의 성 문제들은 해결되거나 해결책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동아리에도 과거와는 또 다른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야기한 새롭게 해결되어야 할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가부장적이라 평가받은 문화를 없애자 필연적으로 이를 대신할 문화를 만들게 되는 과정에서 남녀간의 갈등이 종종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역사회의 성담론화는 기존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의 지나친 차이로 인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이 주거나 서로 간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리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구끼리가 세 번째 자료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만해도 남성 중심의 문화였던 우리 동아리가 오늘의 모습으로 변하기까지는 동아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바탕으로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이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3번째 출판물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닌, 매 자료집마다 우리가 직면한 성 문제에 대한 신선한 자극 이상을 선사합니다. 문자를 통해 친구끼리가 사회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는 긍정적 성문화로의 지속적인 변화를 희망하시는 또 다른 분들에게도 나름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친구끼리가 동아리와 사회의 달라져가는 성문화 속에서 생성된 새로운 다른 문제에 직면한 이들에게 과거와는 다른 그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역사회 회장 박임윤진

발간사

내가 잘 살고 싶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로는 쉽게 그런 삶을 일궈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바뀌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친구끼리 5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들을 우리들 자신의 삶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남녀 차별적인 사회 구조에 저항하고, 보다 자유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동아리 내의 작은 실천 모임..... '친구끼리'가 활동해온 지 벌써 5년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돌을 맞는 이 시기에 두 번째 자료집이 나온 1998년 여름 이후의 친구끼리 활동 결과물들을 정리하고 다듬어서 '가족'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세 번째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지난 2년 여 동안 친구끼리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그 길 위에서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친구끼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녔던 문제의식이나 변화에의 의지들을 받아 안아서 힘있게 다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결의의 자리를 갖기 위함입니다.

왜 '가족'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자료집에서 친구끼리는 동아리 내의 성 차별적인 문화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우리 주위의 다양한 여성문제들을 살펴 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선 자료집이 우리 고민의 수위에 있어서 '넓이'를 추구했다면, 이번 자료집에서는 '깊이'를 추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그 안에 녹아 나있는 여러 가지 여성문제들을 읽어내고 그것들을 내가 겪

고 있는 일상 속에서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가족'이라는 주제는 친구끼리가 '우리역사회'라는 하나의 동아리 내의 소모임이라는 것을 반영해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동아리 생활을 하며 있어서 가장 많은 질곡을 느끼는 부분이 다름 아닌 '가족'이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눈치를 보느라 (또는 보지 않기 때문에) 동아리 사람들과 밤늦게 술을 마실 수 없게 (또는 있게) 되는 상황에서부터, 동아리 활동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시며 비싼 등록금 내는 마당에 착실히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가족으로부터 목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물론 동아리 사람들 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죠.

우리를 잡는 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20년 이상 동안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구축해 나가려고 하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친구끼리'에서는 이 걸림돌들을 구체적으로 읽어내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의 모습을 꿈꾸어 보았습니다. 물론 친구끼리 첫 번째, 두 번째 자료집의 '가족이야기'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꿈들을 쉽게 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회가 쉽게 바뀌지 않는 탓인지 자료집에 나타나는 문제의식 면에서 보면 5년 전, 3년 전의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끼리는 그·럼·에·도·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구요? 여기 함께 모인 사람들, 이런 자료집을 내면서 무엇이든 바뀌자고 다짐했던 사람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4월 어느 날 동아리 방에서
97김백혜영

글 쓰는 순서

가족 들여다보기

06 INTRO : 가족에 관한 단상들

08 올 엮마

가족 이디오토키어 번역 걸기

11 가족 신화의 탄생 - 결혼과 결혼식 문화

16 부부관계 - 열립과 달핍 사이에서 게릴라 문화운동 피기

24 부모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 18세 독립론에 부쳐

27 가려진 가사노동

32 모자이크 - 가사노동의 직업화

33 가족 모두에게 열린 욕아를 꿈꾸며

41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 변천사

45 풍트: 부모성 함께 쓰기에 대한 여러 반응들

새로운 가족 꿈꾸기

52 살아 숨쉬는 가족, 그리고 살려내는 가족

56 미주

부록(활동일지)

58 98년 그 이후...친구끼리 2년 나기

66 편집후기

INTRO : 가족에 관한 단상들



“뭐든 깨진다. 돌도 깨진다.”
 “난 가장이야.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 살아야 돼.”
 “이런 영화 다시는 만들지 말아요!”
 “감독, 카메라 치워요!”
 영화 <가족 씨네마> 中

8월 25일

.....보철 때마다 방에 데리고 들어갔지만 좀처럼 자려고 하지 않는 민영이.....부엌으로 데리고 나와 다시 칼질을 하다보면 어느새 애가 도마 끝을 위태롭게 잡고 있다..... 급기야는 식탁 의자를 넘어뜨려 발가락 살이 벗겨졌다. 한참을 울고, 울다가... 먹은 것을 쟁그리 토해 버렸다. 그것을 겨우 치우고 썩크대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민후가 똥을 누겠다고 한다. 화장실에 앉혀놓고 부엌으로 뛰어간다... 서둘러 프라이팬을 내려놓는데... 기름이 파팍, 하고 팔목으로 튀어오른다... 바셀린을 바르고 오니 민영이가 밀가루통을 하얗게 뒤집어쓰고 있다.



전화가 왔다. 늦는다는 걸 알리는 그이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끊겨버린 뒤에도 전화기를 한참 동안이나 들고 있었다. 나는 대체 몇 시간동안 무슨 짓을 한 걸까.

- 은희경의 소설 <타인에게 말걸기> 中

[장정] 사내는 말여 차고로 심이여! 사내로 세상에 태어나 성공해야 허는디. 하나는 합법적으루다 나라 대통령이나 회사 오너 되는 거이고, 둘로는 조직의 보스가 되는 거인디. 궁계 불법이여 그기. 먼일이든 우로 올르른 오를수록 통허요. 궁계 합법이나 불법이나 심을 갖을라고 기를 쓰다봉게 대통령도 되야불고 대부도 된다 이거여, 이 대부가, 궁계, 보스지라. 왕초제. 암마, 허른 이 알루 동생들이 좌허니 무릎꿇고 앉어. 느그들 나 집 경호 좀 해야 쓰겠다. 글른 내 마누라 새끼덜이 사는 디를 철통걸이 지키는디, 그기 정원이 넓직허고, 집 앞으 시퍼런 호수 있고, 뒤로 산책로 난 숲이여. 나으 패밀리들이 거서 산단 말이시. 패밀리들이! 나가 패밀리를 지키는 일이라든 워면 적이든 가차없이 공격해부러. 나가 강헌계! 존경받는 가장인게! 사내라든 그려야 안쓰겄소.



(장정, 숨을 크게 쉬어 가슴을 부풀린다.)

[장정] 존경받는 가장! 그기 나 꿈이여.

- 연극<남자충동> 中



친할머니가 작년 5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 할머니는 병원에 계시다가, 작년 7월부터 두 아들인, 작은 아버지집과 우리 집에서 한달씩 번갈라 가며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이다. 엄마가 결혼한 이후부터 한번도 엄마를 비롯한 우리 가족에게 정이라곤 쥐 본적 없으시는 할머니였기에, 그리고 10여년 전, 친형인 나의 아버지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고모들과만 상의하여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집 한 채

를 팔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하면서, 그 대신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묵묵 무답인 작은아버지를 비롯한 정을 느낄 수 없는 친가 사람들이었기에, 엄마 입장에서는 할머니를 모신다는 것이, 무척이나 마음내키지 않는 일이셨다. 더구나 아버지는 서울에 일주일에 한번 밖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담은 어머니에게 떨어지는 것이다.

암튼 할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엄마는 안방을 내주셨다. 엄마는 마루에서 잠자고... 할머니는 일부러 변을 가리시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며칠 전 엄마는 화장실에서 제일 가까운 내방에 할머니 거처를 주시기로 하시고 안방을 아들인 나에게 주셨다. 그러다 보니 안방의 가구들은 내방과 누나방, 그리고 할머니방에 분산되었다. 며칠 후 엄마는 나에게 너무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다고 하셨다. 부엌일을 마치고 잠깐 쉬려고 혹은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려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화장대는 할머니 방에, 장롱은 내방에 있으니 말이다.

25년이 지난 지금 엄마 자신의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렇다. 엄마에게는 결혼 후 25년간 엄마 자신의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해야 하는 공간만 있을 뿐...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리게 보여 쟁겨줘야 할 누나와 나 그리고 아빠가 있을 뿐... 세 번째 가족이야기를 쓰지만, 해마다 나의 가족 분위기는 더 악화되면 되었지 좋아 지지는 않는다. 아버지는 교감 시험에 합격되어 내년 봄쯤이면 교감 선생님이 될 것이고, 누나는 착실히도 월급을 모아 지금은 알부자이며, 나는 군대도 확정되고 공부를 좀 못한다 뿐이지 뭐 그리 크게 걱정할 높은 아닐 듯하다. 결국 엄마만 계속 찌그러진다. 엄마만 목을 돌리기 힘들 정도로 목근육이 굳어가고, 엄마만 방을 뺏기고, 추운 겨울에 위풍 센 마루에서 엄마만 잠을 설치신다.

이런 나의 엄마는 나보고 가족 외엔 사람은 결국은 혼자라고 약게 살라고 하신다. 생각해 보면 엄마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 당신을 철저히 지켜내시면서도, (오히려 일부러 피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가족 관계에서는 철저한 의사소통을 요구하시며, 자신의 끊임없이 희생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가족들의 성공 하나 하나가 자신의 것으로 바라보신다. 이렇듯 엄마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족에 뿌리시기에, 당연히 당신의 정체성을 가족에게서 찾으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결국엔 자신의 것이 없다는 생각에 당신의 무능력함에 대해 많이 허탈해 하시는 것 같다. 그것은 어머니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이 땅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결정되어진 여성들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시지 못하고 말이다.

태어나서 25년간 할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남자 눈길 한번 보지 못하고, 과거 바라보기만 한 첫사랑을 스물 넷 먹은 아들에게 침으로 조심스레 말하는 귀여운 울 엄마, 결혼 전엔 일곱 딸 중 둘째로 태어나 다섯 동생을 쟁겨야했던 울 엄마, 중매로 아빠를 만나 결혼 초엔 아빠만 바라보는 시집식구를 쟁기면서도 설움 받던 울 엄마, 자식을 낳고 자식이 중학교에 입학하자 아빠 직장이 강원도이기에 아빠를



그곳에 두고 자식 둘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주말부부생활을 올해로 13년째 맞이하시는 올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당연한 줄만 알고, 속옷 한번 빨지 않으면서 돈번다고 대학다닌다고 유세나 떠는 자식 둘과 남편을 그대로 받아 안으시며 어깨와 허리를 망가뜨리는 올엄마. 식탁과 화장대의 유리 아래에 엄마의 고등학교, 처녀시절의 흑백사진을 끼워두고, 즐겁고 이쁘기만 했던

과거를 회상하지만, 그 당시 동창들을 만나기조차 우리에게 미안해하는 올엄마. 나이 선이 접어들어 흰머리를 뽑을 수 없을 만큼 된 우리 엄마는 아직도 무언가에 계속 쫓기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안에 엄마 자신은 없다.

나는 중학교 이후 엄마랑 많이도 싸웠다. 내가 어렸을 적,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가족의 집을 홀로 지기로 약속했던 엄마랑. 그리고 한번은 엄마에게 이런 심한 말까지 하였다. '엄마의 사랑을 자식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엄마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주는 것이 엄마의 사랑을 갚는 길이라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제 집을 지려고 하시지 마시고 엄마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엄마에게 엄마의 인생을 찾아보라는 말이, 엄마에게 얼마나 절망감을 주는 폭력적인 말임을 깨닫는다. 이 땅의 수없이 많은 올엄마! 저의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라, 8할은 어머니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이렇게 나의 존재를 준 어머니이기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다면 제 아내가 그리고 제 딸이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가족 신화의 탄생 -결혼과 결혼식 문화

▶ 결혼은 왜 하는가?

결혼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다. 결혼함으로써 남녀는 일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약속하고 두 사람이 중심이 된 가족을 꾸리기 시작한다. '가족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결혼에 특별한 축하를 하고 기대를 건다. "이제 장성한 자네들이 혼인을 하니 부디 파뿌리 되도록 행복하게 살게……." 그러나 익히 알 듯 결혼이란 이미 다른 세계에서 오래 살아온 두 사람의 결합이므로 새로운 출발이기 이전에 각자의 삶의 연장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제까지 자신이 자라온 가정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혼은 왜 하는가? 결혼하는 이유와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찾아보았다.

우선,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 공동체를 꾸린다.

우선,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 공동체를 꾸린다. 그들은 함께 가게라는 경제단위를 경영하고 크고 작은 가정 안의 사건들에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결혼은 남녀간의 성관계를 합법화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성욕구를 안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안정적인 재생산을 가능하게 해 주는 통로가 결혼이다. 점점 개인화되는 사회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끝없이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기도 하다. 한편 오늘날의 20대 후반 남

너에게 '사회적 압박'이라는 측면도 결혼의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독신 남녀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나이가 찬' 남녀에게 주위에서 기대하는 것은 결혼하여 사는 것이다. 혼자 살면 어딘가 결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거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 결혼은 사회에서 일탈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OO' 광고가 보인다. 결혼정보회사 말이다. "정말 OO를 선택하길 잘했어요!" 하는 광고 문구, 사진에는 단정한 여자, 깔끔한 남자... 근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쩐지 우습다. 이런 광고는 요즘 들어 더 많이 보인다. 결혼은 순수하게 인간사인데 그런 일에 어떻게 회사에서 골라주는 사람과 만나나? 아는 사람이 소개해주는 것도 아니고, 갖가지 신상을 밝히고 적당한 사람을 찾겠다고 회사에 의뢰할 수는 없는 일이야! 결혼은 인연이 닿는 사람과 운명적으로 만나서 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난 거부한다구!

그런 광고를 보면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나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거부감은 접어두고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다. 결혼에 있어서 '조건'이 존재함이 사실이다. 결혼 정보회사뿐 아니라 선을 본다거나 대학 시절 소개팅을 하는 경우도 들여다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조건'을 검토해주는 결혼정보회사가 생겨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경제 원칙으로 설명하는 결혼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삶보다 결혼 이후의 삶이 더 나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결혼을 선택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경제적'이라는 말에는 금전적, 성적, 사회적 입장 등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학벌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배우자 뿐 아니라 건강한 배우자, 성격이 잘 맞는 배우자, 성적으로 만족스러운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결혼상대자이다.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 이상의 사람이기를 바란다. 그것은 결혼 후의 삶에서

예전보다 유리한 입장이고 싶기 때문이다. 결혼경제학은 비인간적으로 보이지만 때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들이 그렇게 설명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혼은 남녀에게 다른 의미를 가진다.

한편, 결혼은 남녀에게 다른 의미를 가진다. "결혼했으니 출가의인"이라는 말은 옛말처럼 들리지만 호주제에 의해 여성은 혼인신고와 동시에 법률상 다른 집안 식구가 된다. 자연히 결혼 이후 부부의 인간관계는 명절, 제사를 비롯한 집안 행사를 통해 남자 쪽을 중심으로 깊어지고, 여성이라면 일반적으로 '며느리의 설움'을 참아내야 함은 물론이다. 전통적인 결혼 양상을 보면 결혼 이후에 여성은 더 많은 인간관계 속에 놓이고 더 깊은 타자지향의 사랑을 요구받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대개 결혼은 남성에게 가장으로써의 권위와 책임감을 부여한다. 이는 남성이 가부장제라는 사회구조를 등에 업고 힘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쉬운 동시에 튼튼한 경제력을 뜻하는 '남자구실'을 못했을 경우에 권위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날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결혼은 전통적인 의미와 많이 다르지 않은 듯하다.

▶ 결혼식 문화

영화 <유리엘의 웨딩>의 유리엘처럼 결혼하고 싶어 목이 탄 사람은 드물다 하더라도 하이얀 웨딩드레스와 찬란한 조명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들뜨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혼은 구체적으로 결혼식과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가진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에 가서 아버지의 딸인 신부의 호적을 지우고 신랑의 배우자로



입적시키는 일. 한 사람의 적을 옮기는 절차라고 하기엔 무척 간단하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결혼을 이웃과 친지들에게 알리는 일. 예전에 메스컴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듯 본래 의미에 비해 호사스럽고 부담스런 행사이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절차를 이야기하려 한다.

결혼식 비용을 알아보러 친구끼리에서 나가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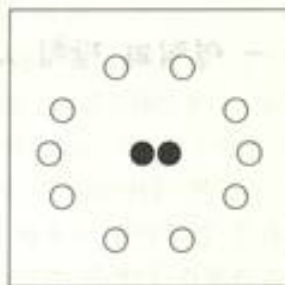
결혼식 비용을 알아보러 친구끼리에서 나가보았다. 한국 결혼 문화원(토탈 웨딩 서비스)에 상담해 본 결과 보통(?)의 경우 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거기에는 드레스와 턱시도 대여비에서 폐백음식과 신혼여행비까지가 모두 계산되어 있었다. 우리는 결혼식 각본에 염증을 느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다양한 남녀의 만남이 왜 결혼 앞에서는 획일화되는가? 결혼하는 주체는 대체 누구인가? 결혼식이 고비용의 소비적인 의식이며 양쪽 집안의 미묘한 자존심 대결이라는 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당사자들마저 결혼식은 부모님이 시켜주시는 것인 양 수동적으로 임하는 태도는 결혼식을 더욱 절망적이게 한다.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보자.

초대받은 사람은 T자로 된 결혼식장의 양쪽 여백을 채우도록 되어있다. 웨딩홀 안이 아니라면 어색할 꽃길을 지나 신랑신부가 행진하고 주례사가 있고 나면 사람들은 사진 한두 장을 박고는 쑥스럽게 식장을 나간다. 결혼식에 적극적이고 싶은 하객도 적지만 이러한 T자 구도는 기본적으로 하객이 관람자가 되게 하는 구도이다. 하객뿐 아니라 신랑신부나 주례자도 결혼식의 주인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더 잘 보여지는 위치에 있을 뿐이다. 더구나 결혼식이 많은 시기에는 한 식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 식이 준비되고 하니 모든 게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친구끼리에서 제안하는 예식장 구도는 원형구도이다.

원형구도는 신랑신부가 예식의 주인이 되고 하객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동그랗게 모여서 신랑신부와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축하하고 축하 받을 수 있다면 결혼식의 의미를 많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이 구도는 이백 명 정도의 하객이 참석하



는 요즘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원형 경기장의 시상식처럼 어디를 보아도 어색할 것 같다. 또 하나의 방법은 결혼식을 피로연과 같은 장소에서 하면서 좀더 여유 있는 예식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하객이 한꺼번에 들어올 만한 장소를 찾는 일 등에서 문제가 생긴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 결혼식이 지금처럼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집안 행사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답답한 결혼식의 원인은 우선 결혼식이 집안 행사가 되었다는 데 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 양가에서 키운 자식의 결합이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결혼식과 관련된 일들에 집안의 자존심이 걸리는 것이다. 그러한 집안 행사가 화목한 축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조금만 어긋나도 집안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에서부터 집안의 반대가 없어야 일이 순조롭고 약혼, 혼수, 예단, 신혼집 마련 등의 일에도 양가는 품위와 실리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가족의 모든 문제들이 결혼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결혼은 그래도 아름답고 신선하다. 그러나 현재의 결혼이 가지는 몇 가지 문제들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결혼해야 하고 남들만큼은 화려해야 한다면, 우리의 결혼은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이 문제들이 우리들 각자의 삶에 다가올 것이다. 아마도 그 최소한의 해결은 새로 가정을 꾸리게 될 우리들의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부부관계

- 열림과 닫힘 사이에서 계절과 문화 운동 펴기



위의 <가족 신화의 탄생 - 결혼과 결혼식 문화>의 본문에서 밝혔듯이 남녀가 어떤 이유로 해서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후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다른 수많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인간관계와 부부관계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과거와 현재에 있어 부부관계의 필요성을 고찰해 본 후,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

▶ 부부관계, 과거와 현재

과거엔 여성의 경우, 아버지의 경제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조차 부양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을 먹여 살려 줄 남편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다.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져오는 결혼지참금으로 경제적인 위치를 상승할 수 있었고, 여성이 남성의 가정에 들어와서 행하는 노동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재생산이라는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 배우자를 맞이해야만 했다. 이렇듯, 과거의 부부관계에서는 사람 그 자체보다는 서로의 기능적인 절대적 필요에 의해, 부부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적인 필요는, 가장 기본적인 먹고사는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결정권이 남성에게 있기에, 여성에게는 처음부터 불평등한 권력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 부부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러한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조건은 일정부분 사라졌다. 물론 현재의 부부관계에서 성관계, 재생산, 경제적 필요 등도 간과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정서적 일치감이다. 현재의 부부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배우자 한사람의 일과와 정서를 함께 하고자 하는 평등적 관계이다. 그런 과정이 결혼하고부터 어찌면 부부가 묘에 묻힐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부부는 자녀, 가사노동 등 어떤 부분은 '하나'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도 하고, 시대·처가의 일, 결혼 전의 두 배우자의 영역 등 어떤 부분은 '둘'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이러한 어찌면 귀찮고, 복잡한 관계를 맺고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과 정서를 함께 하고픈 인간본연의 감정이라 생각한다. 아무튼 이러한 정서적 일치감을 위한 서로의 필요에 의해 관계 맺어진 현재의 부부관계는 과거에 비해 당연히 많은 부분에 있어 평등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우리가 바라는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이어야 한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사회라는 바다에서 홀로 떠있는 섬이 아니라, 파도에 흐름에 따라 흔들리는 돛단배와 같은 조직이다. 다시 말해, 부부관계만 잘 이루어 낸다고 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 자식이 아파 병원에 가야하기에,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이 하루 동안 회사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웅당 회사, 친척, 이웃 등에서는 바라보는 눈초리는 아직까지도 남성보다는 여성쪽에 부담이 실리게 마련이다. 그 외 시대, 처가

에서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분위기를 벗어나기도 매우 힘들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즉 부부가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부부를 억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부부는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들만의 대화를 통한 합의로, 외부의 문제에 대해 벽을 세워 차단할 필요가 있다. 부부 외의 공간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을 부부의 합의 아래, 거부하기도 하고 부부만의 영역을 일정부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나가기 위해 부부관계를 부부관계로만 한정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부부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영위함으로 인해 생기는 특수한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상호 보완적이고 평등해야 한다. 성 관계에 있어서의 부부강간이라는 말이 심상치 않게 이야기된다. 또한 엄청난 양의 가사, 육아에 있어 주부 곧 여성이 전담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이 벌여들인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경제력으로 인한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여성은 늘 약자가 된다. 즉 이러한 대부분의 문제가 여성의 경제적 능력으로 소급된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한국 사회의 평균 학력을 가진 여성이 취업을 하여 장기간동안 직업을 가지면서 남성과 동1등한 보수와 대우를 받기란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사회의 암묵적인 억압 속에서 여성은 쉽게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사적영역으로 흡수되는 것을 경계하고 최대한 저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생 이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자신의 보수에 맞먹는 혹은 초과되는 육아기관에서의 육아비용에 의해 결혼전의 직업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육아, 가사노동, 성관계 등의 부부관계의 제반문제는 서로 모두에게 동등하게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은 결혼을 할 때부터의 서로의 대등한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를 생각하고, 부부의 합의하에 적절히 서로가 분담하여야 한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부부의 통장이 각각 존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가사일이 적절히 분담되어야 하며, 자식이 아플 때, 절반은 남편이 결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부부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어지지 않도록 늘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며,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부부관계란 산을 오르는 두 사람의 관계와 같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라고 두 사람만의 조직이기에 간단히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으나, 부부관계란 적게는 두 개의 집안 속의 조직이며, 크게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는 조그만 집단이다. 그러므로 현재처럼 성 역할이 나뉘어진 채, 경제적 권력관계로 인해, 그리고 문화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부부관계로 돌아지게 된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 사회전체적 분위기가 순조로이 마련될 수 없다면, 악전고투를 해야하는 것이 부부관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피부로 절감되어 지는 가장 최하 단위인 부부관계에서 싸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부부라는 일차적인 관계 속에서 외부에 대해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의 노력을 사회로 확대하는 문화운동이 필요하다.

부부관계란 산을 오르는 두 사람의 관계와 같다. 서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의존하며 산에 오르며, 두 사람의 배낭에는 함께 먹고 잘 쌀과 텐트는 공동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결국,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두 사람 각자의 다리 근육으로 오른다는 것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서로 독립성을 인정하고, 또 개인은 개인의 독립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노력하여 언제든지 이혼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문화 운동의 첫걸음 : 성생활!?

부부관계를 영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매개를 가지고 공동체가 유지된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이나, 자녀, 경제적인 것, 그리고 친인척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부부관계 중 둘만의 관계로만 치부될 수 있는 성생활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성생활이 일상생활과 동떨어져서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톨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굴러가는 게 섹스와 일상이다.’

부부관계와 다른 인간관계를 구분 짓는 혹은 부부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의 하나가 성생활이다. 오늘날의 부부관계는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관계, 즉 확대 가족 속의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핵가족화 되어 부부가 중심이 되는 더욱 긴밀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결혼은 “본질적으로 권위나 복종에 기반을 둔 권력 구조”인데 반해서 새로운 결혼은 “사랑과 친밀함을 기초로 하여 창조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새로운 시도”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성생활이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ice는 만족할 만한 성생활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감정의 교환, 유연함을 제공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가능케 한다고 한다. 성생활과 부부간의 결혼 적응, 이 둘 중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는 차치한다 손치더라도 둘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실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성생활간의 밀접한 관계를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실정을 보면 의문시되는 것이 적지 않다. 혼외 정사가 남자의 경우 72.9%에 이르며, 1978년부터 1986년 사이에 이혼 사건의 원인들 중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전체 원인

의 48.3%로 이혼 원인의 1위를 차지한다는 통계자료에서 보듯, 부부간의 성생활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부부라는 제도적 허용과 사회적 암묵 속에서 부부간은 비밀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바는, 부부관계 속에서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성생활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부가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원인을 밝혀보고자 함에 있다.

‘첫날밤엔 목석처럼 가만히 누워있어야 하며, 그냥 받아들여야 해.’ VS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쫓라’

가족 심리학을 연구하는 Mancini(1979)가 조사한 부부들의 여가 활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45%가 여가시간에 가장 즐기는 것은 성관계나 정감적인 활동이며 그 다음은 체육활동, 독서 등이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독서가 37%, 성관계가 26%, 그리고 바느질이 25%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Kinsey(1953)의 보고에 따르면 결혼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절정감을 경험하는 기혼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부인의 경우는 남자와는 반대로 처음엔 무언지도 잘 모르고 의무감으로 하다가 30대 후반에 와서야 성을 알고 즐기게 되며 성적인 욕구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자와 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고 한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결혼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와의 성관계 만족도가 떨어지고 배우자를 성적 파트너로서 생각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듯 부부간의 성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성의 문화에서 학습된 태도 때문에 남성들은 성관계를 즐기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들은 성관계를 종속의 번식이나 특수한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보는 차이가 생긴 것이다. 여성은 ‘첫날밤엔 목석처럼 가만히 누워있어야 하며, 그냥 받아들여야 해.’라는 말로, 또 남성은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쫓라’라는 말로 대표되는 사회화가 되어, 성적 상상력의 차이가 생겼으며, 그 후 실질적인 부부관계 속

에서도 대화를 통한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서로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기에 점점 그 간극은 벌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남녀의 분리된 성적 사회화 과정에 가속도를 가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유교 문화적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이다. 예전엔 다른 것은 몰라도 성적인 불만으로 상담소를 찾는 경우는 드물었고, 또 그 문제로 이혼을 고려하는 아내는 없었다.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사유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라는 막연한 말로 얼버무렸다. 우리 나라의 부부들은 성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다. 아니 삼가왔고 또 기피했다고 해야 맞는 표현일 것이다. 대화뿐만이 아니라 부인의 경우에는 성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체념해야 했다.(유영주, 1981) 이는 한국의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성 관계 뿐 만 아니라, 가사노동, 친인척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부부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서 계속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남성은 아직도 동남아를 순회하며 섹스 관광을 하며 각종 정력제를 찾아 혼외정사를 꿈꾸며, 여성은 끝도 없는 가사노동에 시달리며 자녀와 남편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에 급급하고 있다.

■ 뭐가 쪽 팔리나? 서로 성을 즐길 수 있도록 터놓고 이야기하자.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부부적응과 성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현재 까지도 가부장제라는 굴레를 남녀 모두 벗어나지 못하면서, 가부장적 사회 제거라는 것과, 부부를 기본으로 축소된 가족 형태에서의 부부관계 정립이라는 이중부담을 안게 되었다.

만족스런 성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대화이다. 성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쌍방이 모두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녀모두에게 폐쇄된 상태로 전해진 성적 상상력의 간극을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좁혀야 하겠다. 또한 이러한 부부간의 문제가 공론화 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야 하겠다.

덧붙여서

가족을 주제로 여러 논의를 했지만 가장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부부관계였다. 이는 먼저 부부관계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부부관계, 성관계 만을 가지고 상상하기에는 부족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폐쇄적인 주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기도 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함께 포르노를 본 후에도 대부분은 분노, 당혹함, 함께 보는 이성에 대한 무안함 등의 생각만 들뿐이었다. 또한 노출장면이 있는 3류 연극을 실험적으로 관람하면서 드는 생각 또한 별 생각이 없음이었다. 단지 사회에서 범람하는 성을 상업화한 3류물이었다 등의 반응정도라고 할까? 즉 우리 또한 우리의 성에 대해 그 느낌에 대해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성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성향을 즐길 수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점은 다음의 과제로 남기려고 한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18세 독립론에 부쳐

▶ 사람들은 왜 자녀를 갖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나이에 적당히 어울리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들의 자녀를 낳아 하나의 가정을 꾸려나간다. 이것은 매우 보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행해져 왔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논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앞의 문제제기이다. 이것은 이 시대에 자녀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현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사회성원의 재생산이라는 목적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자녀 출산의 의의를 가정 안으로 한정해 볼 때, 옛날 여성들에게 자녀 출산은 그녀들의 지위 즉,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주었으며 가정 내에서 여성들에게 부여되었던 역할을 수행해내는 중요한 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요즘 시대의 여성들은 가정이 아닌 사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지위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속박됨 없이 살아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녀 출산에 대해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 종속적 교환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 인간본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친구끼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부모들은 자기 윗대의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주었던 물질적, 정신적 은혜를 갚아나감으로써 다시 자신의 자녀를 낳아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동시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고리를 이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인 교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체계에서 발생하는 계산적인 교환관계가 아니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의존하고 기대하는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각 개인이 독립적일 수 없고 서로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끈끈한 인연으로 가장 큰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기대어 설 수 있는 곳, 나를 희생해서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곳...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가 자신들에게 행하는 맹목적인 사랑과 희생을 느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부모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이 진정 부모를 위하는 길이 될 수 있을까? 솔직히 나의 입장에서만 건주어 봐도 이러한 삶이 얼마나 서로간에 힘든 일인지 알 수 있다.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다. 모성애를 느끼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실로 자녀들에게 크나 큰 감동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모르게 나는 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부담감이 더해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엄마는 너만 믿고 산다..." 첫째로 태어나 받는 기대와 사랑이 이제는 빠져나가고 싶은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것이다. 이러한 나를 보는 어머니도 그 기대의 무너짐 속에서 아파하고 계실 것이다.

▶ 우리는 홀로 당당히 세상에 설 수 있는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정립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종속물이 아니며 그들은 홀로 당당히 세

상에 설 수 있는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부모들은 더 이상 과도한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의 그늘 아래로 가두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들은 단지 자신이 만든 생명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이 하나의 또 다른 인간으로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버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선택과 책임을 스스로 질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서로 간에 독립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 아동으로서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가 오면 자녀들은 부모 곁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생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18세 독립론'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18세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의 집을 떠나 자신의 일을 찾고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이 18세까지의 아이들은 대학이라는 입시를 위해 공부만 열심히 하도록 요구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하더라도 사회는 이러한 아이들을 수용할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종속적으로 서로를 구속하는 부모-자녀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18세 독립론'이 바로 설 수 있는 사회 구조적 변화 또한 요구하고 고쳐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유교적 전통 아래 가부장적 혈연 관계를 중시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관습적, 문화적 규범체계를 안고 살아왔다. '효'라고 정의되는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부여하는 이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한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고 생활체계가 바뀌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체계로의 변화는 당연히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의 변화가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종속적 교환'관계에서 '18세 독립론'으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는 오늘도 집에서 편히 쉬지 못 하신다. 한 무더기의 세탁이 끝나면, 누군가가 배가고프다한다. 밥을 복든지, 비벼서 먹이고 나면, 마루가 어질러져 있다. 아빠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시고, 언니는 옷 좀 다녀 달라한다. 날마다



벌어지는 우리 집 상황이다. 끊임없이 가족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맡기기 위해 엄마를 부른다. 그리고 보면,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애들인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뒷치닥거리를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수혜 속에서만이 엄마의 역할과 애정을 확인하게 되는.

어렸을 적부터 엄마는 항상 식구들이 바라는 '엄마'의 역할에 충실하셨고,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 끝없는 가사노동과 구성원들에 대한 건강관리, 잊을 만 하면 돌아오는 갖가지 제사와, 가족행사들...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엄마의 모습은 항상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의 집안일이라는 것에 '노동'이라는 다소 삭막하고, 화폐 가치화 하는 개념을 연관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집안 일을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치 없는 일로 치부해 버리는 관념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다.

흔히들 쉽게 내뱉고는 하는 "집에서 애나 보지.."라는 말, 집안일과 애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지 못하는 지각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자라면서, 나는 그 말들에 반발하기보다는 적잖이 공감하면서, 어머니와 같이 자아 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루종일 일하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결국엔 텅 빈 상실감만 남는 껍데기 같은 생을 살지는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었다. 나만은 보통의 여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모양이다. 나도 역시 손님이 오면 차를 내가야 하고, 집안에 엄마가 없으면 저녁상을 차려야 하고, 설거지를 해놓고, 결혼도 하기 전에 실체도 모르는 나의 아이를 위해 술 담배를 자제해야하고, 조신하고 참한 여자로서 자라야함을 주입 받으면서 자란 이 나라의 한 여성에 불과할 뿐인데 말이다. 그리하여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있을 자리에서 어머니의 역할-보살핌과 사랑, 세세한 것에 대한 관리 같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결코 내 본질과는 상관없이 보이는 인쇄심과, 섬세함을 억지로 끌어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텐데 말이다.

▶ 가사노동이 지금의 형태로 자리잡기까지

우리의 어머니는 어떠한 이유로 가사노동이라는 천직(이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는 감히 현재의 가사노동을 천직이라 부르려 한다)을 전담하게 되셨을까? 그리고 이러한 노동은 어떠한 사회구조적 조건하에서 그 가치를 평가절하 당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비단,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우리의 어머니의 삶을 옅게 자리 매김 하는 작업뿐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우리는 “가부장제라는 단순히 심리적인 지배나 억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가사노동을 화폐가치화 했을 때, 그 양이 GNP의 약 33%에서 46%까지로 추산된다고 한다. 물론, 이 논의에 있어서도 학자들 사이의 대립되는 관점과 산출방식에 대하여 많은 이견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논의의 핵심은 가사노동이 더 이상, 실체 없는 사랑의 노동은 아니라는 것이

다. 기존에 가내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이미 개별적인 가사노동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면에서 볼 때, 가사노동이 부분 노동-분명히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화폐화된 가치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가사노동을 정당히 평가매기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기제는 무엇일까? 우리는 자본주의의 탄생에서부터 주목한다. 정확히는 역사적 자본주의가 기존의 가부장제와 손잡게 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모순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근대자본주의가 확립되기 이전, 여성이 가정에서 담당하던 가내노동은 남자들의 가외노동과 마찬가지로 가족공동체의 재생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역사적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남자들에 비해 가내에서 일하는 비중이 많던 여성들은 그대로 가내노동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남성들의 노동력은 시장에 편입되면서 노동력을 가진 상품으로 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러한 분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낭만적 사랑, 연애결혼, 부부중심의 단란한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기제가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시장화 되지 않은 노동은 사적인 노동으로 남겨지게 되어,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부분의 구성요소로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라는 부담을 짚어지는 여성들은 항상 2류 노동자로 분류되어, 자본의 노동력착취를 용이하게 해왔다. 이렇게 가부장제가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여성들이 이중고를 겪게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 가사노동을 바라보며

여성의 고유한 공간으로 간주되어오던 가정에서의 역할을 잠시(?) 접어두고, 다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고정된 성역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사노동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관념들-사회에서 임금으로 지불되는 생산노동에 비해, 가사노동은 가치를 갖지 못하는 노동이고, 그리하여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식의-의 연장선에서 그 가치를 깎아 내리는 과정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분명, 현재 가사노동은 그 노동의 양과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불 노동이다. 그렇다고, 주부들이 행하는 주 77시간의 청소, 구매, 요리, 설거지와 세탁 및 다림질, 장보기와 집안 경영 등의 노동이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한다고 말 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끌어내려는 노력일 것이고, 가사노동을 임금화 하지 않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사노동이 임금화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확히 말해 모든 것이 화폐 가치화 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노동력의 가치도 평가 절하되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성별분업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아무런 의의도 얻어내지는 것이다. 그 해결방안이 가사노동의 사회화1)로 나타나든, 가사노동에 임금을 매기는 방식2), 혹은 가정관리사의 육성으로 나타나든 말이다.

주부들의 일이 가치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가사노동의 성격 자체에 있다기보다, 남성 중심사회 속에서 여성의 가치와 하는 일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본다. 그 이유는 가사노동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이 전혀 가사노동의 양을 줄여주지 못함에서도 발견된다. 김혜경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들이 실제로 행하는 가사노동의 시간은 '가정중심성'의 강화로 인해 주부들에게 요구되는 작업들이 더 다양해지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면서, 가정이 하나의 성전으로 비추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에 대한 다른 가정과의 비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늘어났다. 끊임없이 기존 성별구조의 연장선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부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복원함과 더불어, 가사노동은 궁극적으로

자기관리노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 말이 가사노동의 임금화와 양립할 수 없는 말이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으나, 우리는 하나의 주장이 곧 다른 식의 폭력적 논의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옷이 떨어지면 꿰매고, 배고프면 밥 찾아먹고, 방이 더러우면 청소하고. 이 모든 활동은 자신의 생활을 윤곽하게 하고, 정리해주는 관리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이 집안에서는 어머니에게, 사회적으로는 가정에 일임되어있다. 그럼으로써 대부분의 우리는 그 대행자가 없으면, 무엇을 할 줄 모르고 뿔뿔매기 일쑤다.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기' 훈련을 우리는 유독 가사와 관련해서는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사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안 일에 대한 가족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만무하다. 이런 식의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책임질 수 있는 훈련은 우리가 주장해온 종속적 교환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18세 독립론을 좀 더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쎄, 어느 쪽이 행복한지는 전적으로 개인이 정할 문제인지도 모른다. 나의 가사업무를 대행해줄 누군가와 산다는 것과 가사노동을 분담하며 혹은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해주는 것. 여성의 입장에서든 주부라는 직업을 택하는 것과 힘들지만 가사분담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다가오지 않는 점이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가사노동의 직업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 영역의 공적 영역화

디자이너		
간병인	코디네이터	
지배인	가정교사	
호스피스	가사	전기공
요리사	노동	관공서
간호사	웨이터	
꽃꽂이사	제사대행업소	세차요원
환경미화원	편드매니저	애완 동물 관리사
청소대행업체	운전사	영양사
반찬가게	세탁소	
회계사	직업화	미용사
요리보조사	조리사	
인테리어	정원사	
보육시설종사자	심부름 센터	
베이비시터	옷수선공	
이삿짐센터		

가족 모두에게 열린 육아를 꿈꾸며

▶ 2011년 즈음의 어느 날

여보! 오늘은 당신이 데리고 오는 날이야... 6시 30분 잊지마!
회사 출근 시간에 맞춰 급히 나가면서 그에게 당부를 해두었다. 나는
애들과 함께 조금 빠른 걸음으로 '우리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큰에는 또래 친구들이 있는 도글방으로 달려들어갔고,
10개월 짜리 둘째 도담이는 알라딘 선생님에게로 인계되었다. 두 아
이들 모두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두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집에 도착
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오늘 저녁 준비를 하지 않은 아빠가 설거지
를 시작했다. 4살짜리 해랑이는 벌써부터 아빠를 도와준다고 난리다.
어린이집에서 언니, 오빠들이 가끔 설거지하는 것 봤다나.....그런 해
랑이의 모습이 너무 귀엽다. 그 동안 나는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온
아이들의 날적이를 펼쳐보았다. 도글방 교사인 양과 선생님의 정성어
린 메모들...저런, 해랑이가 옆집 창호랑 오늘 싸웠군. 그림책 때문에
싸웠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해랑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다.

▶ 왜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에서부터인지

아침 일찍 출근길에 아이를 어딘가에 맡기고, 저녁이 되면 늦초가
된 몸으로 아이를 찾아오는 어느 맞벌이 부부의 일상. 결혼 후에도
내 일을 계속해나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던 우리 부부도 기본적으로
그런 맞벌이 부부의 일상과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갖게 된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상을 작은 부분에서부터 조금 다르게

재구성하고 싶었다. 나와 그의 힘이 닿는 데까지.....특히 '육아'와 관련된 부분에선 더더욱.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각자의 집안에서 자신의 독립성을 쉽게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들은 -특히 내 경우에는 직장을 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취방을 스스로의 돈으로 얻는 등의 경제적인 독립을 완전히 못한 상태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집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지 여전히 생활적인 부분에서 부모님의 갖은 간섭을 받고 있었지- 적어도 우리가 새로 일구어 가는 가족 안에서만은 서로가 독립적인 주체로 자리매김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 우리와 우리 부모님 사이에 존재했던 그 질긴 종속의 끈을 우리 가족 내에서 과감히 끊어버리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우리가 처음 봉착하게 된 것은 갓 태어난 우리의 아이를 어떻게 기르나와 관련된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육아' 임이 틀림없다. 나와 같은 '엄마'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 지점, 그리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각종 노동과 그와 함께 전반적인 가사 노동 등을 떠맡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육아'이고, 내 남편과 같은 '아빠'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의 양육비를 비롯한 소위 그 가족의 생계비를 벌 책임을 떠맡게 됨이 분명해지는 지점 또한 바로 '육아'이기 때문이다.

많은 우리의 '어머니'들은 아직도 아이의 여린 감수성을 잘 이해하고, 어린아이를 정성스럽게 보살필 수 있게 하는 것은 역시 그 위대한(?) '모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모성이데올로기'의 그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살핌'의 능력은 모든 여성에게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천부적인 능력이라기 보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남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장려되어야 하는 능력임과 동시에 어떤 성이든지 지닐 수 있는 능력이다. 한편 이 사회가 지극히 성 차별적인 역할 분담을 강요하고, '여성성' 대 '남성성'이라는 이분화 된 인간형만을 생산하게 되는 계기도 바로 이 '육아'에 있다. 어렸을 때부터 여자아이에게는 예쁜 인형들과 소꿉놀이의 도구들을, 남자아이에게는 총싸움을 할 도구들만을 쥐어주게 되는 상황들은 우리

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인간상을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키워나가고 권장하는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된다.

▶ 열린 육아의 걸림돌들 그리고 그에 맞서는 노력들

아이들을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동육아원인 '우리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결정한 후에 우리 부부 앞에 놓여 있던 걸림돌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 먼저 시어머님께서 우리가 첫 애인 해랑이를 태어난 지 2개월 되는 때 공동육아원에 보내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 어린 핏덩이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어머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던 부분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키워지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게 되고, 인성 면에서도 웅당 받았어야 할 애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아이의 성장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시며 우리 부부를 -특히 계속 일을 하겠다고 뻔히는 나를- 나무라셨다.

그러나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너무 벅찬 일이었다. 물론 우리 부부에게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시키고, 애정을 베풀 의무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나 혼자서 육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떠맡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의 육아 역량도 문제였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런 희생에 대한 강요에 의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식만을 바라보고 살아왔고, 우리 가족도 그런 어머니에게 강요되는 감상적인 희생의 틀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줄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들을 마련해 나갔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6개월 이전에 탁아기관에 맡겨지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물론 그 변화에 불안정감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을 파악하게 되어 비교적 잘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찍부터 시설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교사 또는 대리양육자들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Rubenstein 과 Howes라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 보다 엄마와 하루종일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울었고, 야단도 더 많이 맞는다고 한다. 오히려 가정에서 아이만 키우는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대할 때 짜증스러워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일이 많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관심은 어떤 공간에 우리 아이를 맡길 것인가와 우리 아이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켜갈 것 인지로 모아졌다.

어떤 공간에 우리 아이를 맡길 것인가

우리가 돌아다닌 곳은 특성별로 동네의 소규모 아파트 '몬테소리 놀이방'과 '베이비 하우스'라는 사설 육아원, 그리고 '우리어린이집'이라는 공동육아원의 세 곳이었다.4) 한 양육자가 평균적으로 맡은 아이의 수는 아파트 놀이방의 경우 5-6명이었고, 놀이방 자체는 원래 소규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총인원을 10명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베이비 하우스의 경우 법적으로 24개월 이하는 1인이 6명까지 담당할 수 있으나 그 때 당시 3명을 담당하고 있었고, 36개월 이하는 1인 20명까지 담당할 수 있지만, 당시는 11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24개월 이전은 3명, 3-4살의 경우는 5명, 5살 이후는 1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다. 결국 아이를 맡고 있는 대리양육자가 우리의 아이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관심은 세 곳 모두 비슷비슷한 셈이었다.

비용 면에서는 놀이방과 베이비 하우스가 1세 미만에는 30만원 대, 2-3세는 20-30만원 대, 4-6세는 15-20만원 대, 6세 이상은 15만원 정도로 책정 되어 있었고, 우리 어린이집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기 위한 출자금으로 처음에 400-500만원이 필요하고, 달마다 운영비로 1세 미만은 40-50만원, 2-3세는 30만원

대, 4-6세는 20-30만원 정도가 필요했다. 우리 어린이집의 경우 1998년까지는 한 달에 200여 만원 되는 정부 보조를 받았으나 지금은 그것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규정을 강화했나보다.5)

또 다른 난관.....비용의 문제

비용의 문제가 제기 되자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다. 특히 전체적인 교육 방향이나 육아에 우리 부부가 참여하는 정도 면에서 좋은 점이 많았던 공동육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이를 남에게 맡기는 것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첫 애 해람이를 낳을 때만 해도 실제 우리 가족의 경제사정은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그와 내가 맞벌이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속된 말로 내가 직장에 나가지 않고 들어앉아서 애를 보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일이 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국가 차원의 육아 비용 보조를 기대해보기도 했었으나 91년도부터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있다는 하나 우리와 같은 중산층 -그러나 여전히 육아 비용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족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6)

우리 첫 아이를 맡기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던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키워주시겠다고 하신 것 또한 우리의 육아 문제를 보다 주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었다. 비용 부담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시어머님께 아이를 맡겨버리고 싶은 유혹을 떨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열린 육아의 꿈을 버릴 수는 없었다. 물론 시어머님도 한 분의 대리 양육자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많은 부분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결혼 하고 나서 육아 문제로 또 다시 부모님께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부모님에게나 우리에게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렵긴 했지만 우리의 아이는 우리의 힘으로 함께 키우겠다는 결심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 결국 집을 사려고

적으나마 적금을 들었던 돈 중 일부를 공동육아원의 조합원 출자금으로 내고, 육아원의 운영비는 나와 그의 월급 중에서 잡비로 썼던 돈들을 조금 더 절약해서 겨우겨우 공동육아원의 조합원이 되었다.

▶ 우리의 선택과 공동육아의 일상들

아마 활동을 하는 날

월차를 이용해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마 활동('아마'는 엄마와 아빠의 줄임말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공동육아 활동 초기에 부모일일교사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다가 그 후 의미가 확대되어 학부모를 대체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부모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을 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청소부터 일일교사, 저녁에 바쁜 다른 조합원 자녀 돌보기, 바자회나 잔치 준비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아마활동이 있지만, 나는 이번에 그냥 애들 점심과 간식을 마련하는 일만 도와주기로 했다.

내가 잠깐 아침에 집안 일을 하고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이미 애들이 알라딘, 도깨비, 양파(선생님들의 별명)와 함께 동네 뒷산인 성미산으로 바깥 나들이를 다녀온 상태였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정도까지 30여명 되는 아이들의 점심과 간식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힘겨운 하루를 보냈다. 나의 아이들과 다른 조합원들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일. 물론 평소때에는 나도 다른 사설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과 같이 아침 저녁 나절에만 아이를 보곤한다. 그러나 가끔 아마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공동육아'인지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곳에서는 다른 사설 보육원에 맡길 때보다



아이들의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관심과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만큼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조합에서 지향하는 또는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교육 이념들 - 어떤 지식 교육보다는 여러 가지 주체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들을 만들어가려는 육아, '다소곳한 꼬마 숙녀' 보다는 생기발랄함과 명랑함, 남녀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경험하게 하는 육아, 그리고 장애우도 함께 하는 통합 교육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 관계를 맺어가려는 육아-에 동의할 하는 편이니까.

우리 어린이집 개보수

오늘은 일요일...평일에는 너무 바빠서 어린이집을 여유 있게 둘러 볼 여유가 없었는데.. 그래도 개중에 어린이집 시설들을 유심히 봐둔 조합원이 벽지가 너무 낡아서 다시 도배를 해야겠다는 제안을 했다. 우리 집과 톨이네, 한샘이네가 힘을 모아 어린이집 도배를 하기로 했다. 일년에 몇 번 있는 정기적인 아마활동에서는 기를 못 펴던 아빠들도 -평일 날 하는 아마활동 중 많은 부분이 부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어린이집의 터전을 가꾸는 일에는 무척 열심이다.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꾸민 방이라고 자랑하면서 즐거워한다. 공동육아 조합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부모들과의 공동육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그야말로 육아에서부터 다른 가족의 모습을 꿈꾸자고 했던 다짐 때문인지- '공동육아'의 상이 어렵지만 잡혀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사회 회의날

매달 한 번 있는 이사회 회의날이다. 나와 연우/재현/정운이 아빠, 준보 엄마, 그리고 교사 대표 '알라딘', 이렇게 여섯 명이 오늘도 모였다. 이번 달 안건은 실직 가정의 조합비 감면과 조모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이다. 조합 가입시 출자금이 400-5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아직도 출자금을 완납하지 못한 집들이 있어서 조합 재정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직한 수현이네와 같은 경우는 당분간 만이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 조합운영비를 50% 정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재정난에 허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돈 전부가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니까.....부족한 가운데서도 만족하려고 노력 중이다. 아이들 교육 방침에 관한 토론의 장, 그리고 '아마'들 간의 침묵도모를 위한 자리였던 조모임이 잘 굴러가지 않는다. 역시 다른 가정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가보다. 사실 해랑이 아빠도 약간은 동네 아줌마들의 모임과 같은 분위기가 풍기는 공간에 속하는 것이 어색한지 조모임에 적극적이지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조모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공동육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들 사이에서의 의사 소통이니까. 육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함께 공유하지만, 가끔 구체적인 교육 방침에 있어서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혼자 키우면 이런 번거로운 일을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역시 그 때마다 나나 그이의 독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아함....벌써 11시다...언제나 회의가 끝나려나..

한국사회 가족주의 변천사

우리의 대부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삶을 꾸려나간다. 복잡한 사회생활에서의 도피적 기능을 해주는 또는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인 의존을 가능케 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은 도덕책에서 그 소중함을 부르짖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있어선 일종의 성역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문화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이 가족에의 이념, 즉 가족주의라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사회의 근본적 변화는 가족주의적 문화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전제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다. 우리는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족주의를 바라보고 또 그 해체와 대안을 논하기 위해 가족주의가 역사적인 흐름 위에서 어떤 양상으로 변화해 왔는지 그 변천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하였다.

▶ 가족주의의 역사적 흐름

조선시대의 가족주의

가족주의의 핵심은 첫째로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집단이며, 둘째로 이 가족집단은 국가를 포함한 다른 어떤 사회집단보다 우선된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조한혜정).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는 전체 경제와 사회의 변화만큼이나 빠르고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해 왔다. 따라서 한국 가족의 이념과 구조에 관해서는 많은 혼돈과 이견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한국 가족문화에서 가장 독특한 특성을 지니며 지금까지도 가족문화의 일부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념이 유교적 가족주의, 그 중에서도 '효'문화라는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 기본적인 생산단위를 가족으로 하는 농경중심의 사회구조와 맞물려 엄격한 규범으로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그 이념이 '충'으로 확장되면서 가신관료제적 정치체제하에서 국가 질서 유지를 확립하는데 근본이 되는 '도덕적 가족주의'의 양상을 띄게 된다(조한혜정). 이 시대의 가족주의는 가정에서의 가르침이 혈연중심의 공동체적 사회에서 곧 사회의 발전과 연결되면서 '내부 통합적이며 외부와도 통합적 형태(손승영)'라 규정지을 수 있다. 조선은 이렇듯 도덕적 가족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경우로 자리매김한다.

해방 후 경제 성장기의 가족주의

조선사회에서 도덕적 가족주의로 작용했던 유교적 가족규범은 해방 후 한국사회에 출현한 권위주의적 집권세력에 의해 주도된 경제 성장의 추구 과정에서 핵심적 대응기제로 기능한다. 업적위주, 성장위주의 경제개발과 권위주의적 사회관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단위를 이용하는 것이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즉 전통적인 효규범, 현모양처규범, 가장규범의 강화는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이라는 물질적, 정서적 과정을 가족이나 여성의 책임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성차별적 임금제도를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도의 자본축적을 보장해 나갈 수 있었다(문소정).

이렇게 지배권력은 전통적 가족규범의 존속을 통해 보수적인 정치 질서 유지와 급속한 경제 성장 달성을 꾀하였다. 그러나 개개의 가족의 입장에서선 조선 이후의 일제 압박기와 6.25전란, 고도의 경제 성장 등의 혼란의 와중에서 외부의 위기에 대처하고 물질적 생존과 적응을 위해 가족 내부의 단결을 강화시키는 '도구적 가족주의(사용하, 장경섭)', 즉 '공리적 가족주의(조한혜정)'의 등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는 자본주의적 원리의 확대에 따른 지위상승의 가능성이 급속히 확대되며 출세주의적 성격을 질게 띠고 강화되어 간다. 이러한 공리적 가족은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생계의 보루로, 또 유일한 휴식처

로 절대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이는 엄격한 위계서열과 장남 및 여성들의 희생,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공리적 가족주의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단기간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순기능적 면모를 지니고 있음은 사실이나 가족의 화목과 변형이 '헌신적인 어머니' 위에 이루어진다는 의식이 이 시기를 통해 더욱 강조되어 '여성'이 아닌 '어머니'가 되길 여성들에게 억압하는 요소가 된다. 이 시기의 가족주의는 '내부에서는 통합적이지만, 외부와는 단절적인 형태'로 규정지을 수 있다(손승영).

현대사회의 가족주의

경제적 발달로 생산과 교육이 실질적으로 거대 조직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가족주의의 형태는 변모해 간다. '효'의 강조를 포함하는 유교적 가족규범과 가족이 토폴 뭉쳐야 산다는 식의 도구적 가족주의가 여전히 혼재하는 가운데 공리적 가족주의의 변질적 형태인 이기적 가족주의와 서정적 가족주의 등 다양한 이념들이 병존한다. '서정적 가족주의(사용하, 장경섭)'는 도구적 가족주의와 대조적인 가족이념으로서 가정은 현대 산업자본주의의 다양한 물인간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난 자율적인 공간으로서 가족원들 사이의 서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규정한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심각한 소외와 불안으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가정에서 그 심리적 도피처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원 개개인에 대한 개체 존중을 가족관계에 내재화시켰으며 특히 부부관계를 애정적 동반자로서 남녀간의 교호관계에 바탕을 두고 어린 자녀를 더 이상 가업승계를 위한 도제적 존재로 보지 않고, 장기간의 온정적 보살핌과 성인세계로부터의 차단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로 보는 등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에서 이보다 일반적인 가족주의는 '이기적 가족주의(조한혜정)'이다. 가족이 더 이상 생산의 단위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적 공간으로 주관적 삶의 실현이 가능한 유일한 피난처로의 의

미를 지니게 됨에 따라 노동참여의 필연성이 감소된 여성은 가족성원을 실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뒷바라지하는 '가정주부'로 가족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에 활발히 참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가족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해 남성은 생계유지자로 도구화되고, 여성은 가족집단의 안녕과 감정관리의 역할을 혼자 떠맡음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포기해야 했으며, 이는 자녀 세대의 종속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가족주의의 이기적인 측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억압으로 작용함에 따라 최근에는 가족의 통합이나 단합을 기대할 수 없는 '내외부 모두에서 단절적인 형태(손승영)'로서의 양상이 증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 가족주의의 해체를 논함에 있어서

이상에서 우리는 사회의 변화에 맞물린 가족주의의 전개과정과 함께 현대 여러 이념들이 서로 뒤섞여 나타나는 혼합형 가족주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이 그 생성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기본으로 여겨져 오며 틀을 유지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듯 사회의 요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족주의가 사회적으로는 합리적 관계정립을 막는 걸림돌로, 그 구성원들 각자에게는 억압으로 작용하여 사회의 흐름과 모순되는 위치에 자리매김 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양화, 합리화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와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 모색과 그에 대한 논의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역시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혼합되어 있는 데다 오랜 기간 우리의 삶에 뿌리깊이 관계되어 왔기에 가족주의의 해체를 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합의점을 찾는다는 그 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나름대로 가족과 가족주의에 대한 정리를 하여 가족 서로의 독립성을 찾아나가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족에게서 기대하는 끈끈한 애정을 잃지 않는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나아가자는 데 합의했다.

공트 '부모성 함께 쓰기'에 대한 여러 반응들

part 1

▶ 11대에는 성이 1024 개가된다??

'부모성 함께 쓰기'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강당. '부모성 함께 쓰기'의 의의와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짧은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 문답 시간이다. 과학자석에 앉아 있던 한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 질문의 기회를 얻는다. 얼굴엔 의아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질문자: 저는 지금 국가 정보원에서 국민들에 대한 data base를 작성, 관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primary index file을 꾸미지만 다중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secondary index file의 key field 중 하나로 이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어떤 개인에 관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직접 접근을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이름별로 간접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이름별 index file을 정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나라의 인구는 대략 4500만 정도입니다. 이 4500만의 이름을 모두 index file로 만들어 관리를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저장 공간과 시간이 필요할런지는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성 함께 쓰기'를 하게 된다면 이 저장공간과 시간의 확보에 크나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한 글

자의 성을 지닌 1세대를 거쳐 2세대는 양 부모의 성을 따게 되므로 두 글자의 성을 갖게 되고 3세대는 네 글자, 4세대는 여덟 글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11세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무려 1024 글자의 성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부르기가 어렵다든지 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제 입장에서만 판단할 때에도 이는 절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저장공간의 용량이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이렇게 많은 key field를 index file로 저장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성 함께 쓰기'의 좋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면도 분명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답변: 글썄요, 아마도 브리핑의 내용을 다 듣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성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면 부모성 함께쓰기는 당연히 실현 불가능합니다. 부모성 함께쓰기의 근본 취지는 조상의 성씨를 모두 다 계승하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가문, 혈통, 대잇기라는 강박감에서 자유로워지고, 남녀를 평등하게 생각하자는 데 취지를 둔 문화운동입니다. 그러니 성을 결정하는 방법도 한 가지 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성 가운데 하나와 어머니의 성 가운데 하나를 골라 아이가 받는 경우 네 개의 성 가운데 아버지로부터는 할아버지의 성을, 어머니로부터는 할머니의 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이어지는 부계의 성과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이어지는 모계의 성을 계승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한 가족이 하나의 가족성을 정하여 가족모두가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취함으로써 성씨와 혈통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part 2

▶ 부모성 함께쓰기는 혈통 파괴 운동이다??

동성동본 금혼 폐지문제가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에 도시락을 들고 다니며 반대 운동을 펼쳐왔던 유생 한 분이 이번에는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 소식을 듣자 서울까지 걸어오셨다. 그분의 반대 이유와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가 이유보라씨의 답변을 들어보자.

유생: 자고로 여자는 발이요, 남자는 씨앗인 법. 세상이 뒤집어져도 한도가 있지, 여자 성까지 갖다 붙여서 두 개씩 쓰자니, 어디 성씨가 장난감이더냐? 어디 혈통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냐? 본데없는 것들, 쫓쫓...

이유보라: 부모성 함께 쓰기는 종종 비슷한 공격을 받습니다. 유교 사상을 굳게 가지신 분들뿐 아니라 신세대라 불리는 저희 또래에서도 부모성 함께쓰기는 마치혈통을 파괴하고 뿌리 없는 원자들이 되자는 운동인 것처럼 오해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부모성함께 쓰기는 완고한 분들을 설득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절반씩 물려진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부계의 성만 인정하는 '혈통'이란 개념은 모계로부터 물려지는 절반의 씨앗을 부정하고 무시해 온 잔인하고 무지한 관념인 셈이지요. 유전학적으로 보자면 부모와 아이의 성이 모두 다른 것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습니까? 또 성씨라 하면 태곳적부터 내려온 것 같지만, 한국에서 성씨가 도입된 것은 6~7세기 경입니다. 16, 17세기만 하더라도 조선인의 40%에게는 성이 없었고 조선말에 들어서 80%의 성씨가 급조되었다고 합니다.

명문세도가인양 하기 위해 성과 본을 마구잡이로 바꾸기도 하였구요. 그러니 성씨를 그렇게 성스럽게 받드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씨를 통하여 조상과 자손과의 연결을 꿈꾸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이고, 우리 조상이 박혁거세니, 김수로왕이니 하는 말들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부부의 합의하에 가족의 성을 정하는 방법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통일하던가, 새로운 성을 정하여 가족의 성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독일은 1994년 이름법 개정에서 부부가 합의하여 아이에게 물려줄 성을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성이 가족을 대표하는 가족이름(family name)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이 방법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생: 계속 유전이니, 과학이니, 하는데, 우리의 법도는 다 잊었느냐?
네놈들 말을 들어보니 우리 조상님들이 다 무식쟁이에 잔인했다는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과학 따위가 통할 수 없는 우리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 미풍양속이 똑똑한 채하는 네놈들의 몇 마디 말에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본디 것이 찢보다 중요한 것이여!

이유보라: 물론 종친회, 족보, 제례문화, 명절문화 등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풍습도 많이 생기게 한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문화들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남존여비, 남아 선호 등과 함께 사회 공동체에 폐쇄적인 기제로 작용해 온 것이지요. 미풍양속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풍속 모두를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우려면 어떤 면에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족보를 위해 반쪽의 성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가게 하는 일은 절대 피하셨던 우리 조상님들도 그게 바로 된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몇 마디를 더 한 후 유생은 열없이 돌아갔다고 한다. 그의 성씨도 두 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후에 전해들었다.

part 3

▶ 우리아이 성은 '변소'일 수 없다!!!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에 지지를 보내왔던 변송이에게 요즘 커다란 고민이 생겼다. 그녀의 친구 오영희의 대화를 보면서 그녀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오영희: 송이야,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변송이: 푸휴~~(한숨 쉬며 하늘만 바라보는 변양)

오영희: 정말 말 못할 고민거리가 있는가 보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아, 8년 지기 친구한테 도대체 말 못할 고민거리가 뭐 있니?
나한테 속 시원히 말 좀 해봐. 웬?

변송이: (한참 뜸들이다가 마지못해) ...나 아무래도 동이랑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오영희: 뭐??? (너무 놀라서 어이가 없이) 도대체 헤어질 이유가 뭐니? 너희들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 아니니?

변송이: 그래서 요즘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하는 문제라는 거 아니니... 그냥 친한 친구로만 지내자고 해야겠어. 성급하게 결혼을 약속하는 게 아니었는데...

오영희: 너도 참 답답하다. 도대체 동이 같은 애가 또 어디있다고 그래? 헤어질 이유가 뭐야?

변송이: 너도 알다시피 요즘 여성학계에서는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을 이루어내자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잖아. 그래도 명색이 여성학을 공부하고 또 여성단체들을 지지하고 있는 내가 이 운동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동이랑 결혼했을 때는 나의 이런 바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오영희: 그게 무슨 말이니? 연애할 때는 여성운동을 적극지지 했던 동이가 결혼 후에는 내가 여성운동 하는 일에 반대라도 한다는 거야?

변송이: 아니. 동이가 그럴 리가 있니? 문제는 동이가 소씨 성을 가졌다는 거야..

오영희: 소씨 성?

변송이: 너도 한 번 생각해 봐. 내 자녀가 태어나면 난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남편과 내 성을 모두 주고 싶은데 동이랑 결혼하게 되면 내 아이들의 성들이 '변소' 아니면 '소변'이 되어버리잖아. 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놀림받을 걸 생각하면... 애들이 부모를 얼마나 원망하겠니?

오영희: (당황스러워하며)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변송이: 동이도 이해할꺼야. 아무래도 나와 동이는 결혼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참! 영희 너도 수돌이와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하도록 해. 나중에 이런 문제로 멀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오영희: 아! 수돌이가 강씨니까 나랑 결혼하면 아이들의 성이 '오강'이 되네... 이런 문제가 수돌이와 나의 사이를 가로막을 줄이야. 할 수 없다. 속상하지만, 수돌이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봐야 겠다.

여기서 잠깐!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예를 들어 운동의 허점을 지적하려 한다. 즉, 부모성을 함께 쓰다보면 어감이 나쁜 성씨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언어에서 풍기는 고정관념을 깨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변태(卞太), 신음(申陰) 등의 성씨는 음이 같은 단어가 주는 느낌을 연상하지 않고 쓰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경우 반드시 부모성 함께쓰기를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현재 부모성 함께쓰기는 일종의 문화운동으로 전개되고 있고 실제로 몇 사람이 동참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의의에 동의할 수 있는가 만으로도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호주제를 전제로 한 성씨 물림에 대한 사회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부모성 함께쓰기에서 나아가 자신이 새로 꾸리는 가족에 어울리는 가족성을 자유롭게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송이와 영희는 성씨를 걱정하여 결혼을 다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친구끼리 부모성 함께쓰기!!

박지찬규

96 김백혜영

97 김백혜영

권박봉근

박이현민

정이영희

장김선희

살아 숨쉬는 그리고 살려내는 가족들

가족 이데올로기에 만지 걸기

- 독립적인 가족들을 꿈꾼다.

우리는 결혼에서부터 부부관계, 자녀간의 관계, 육아, 가사 노동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면에서 현재 우리 사회 가족의 모습을 분석하고 그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을 압박하고 있는 가족이데올로기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실체에 맞서 새로운 가족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지금, 우리는 가족 주체들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가족상을 꿈꾼다. 적어도 내가 만드는 가족은 기존의 가부장적인 가족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강요했던 그런 종속적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흔히 말하는 '화목한 가족'이라는, 지나치게 보편화되고 무성(無性)화된 가족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실제 우리가 가족을 사고하고 가족의 한 성원으로서는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방식과는 유리된 채- 얼마나 권위적이고 성 차별적인 구조에 종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논의는 시작되었다.

우리는 부부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니라 '양 집안의 관계'로 변질되는 현실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종속적인 교환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또한 아직도 이 사회의 딸과 아들은 가족 내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회의 지배 종속 구조에 적용하도록 교육받고, 그 와중에 여성의 노동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족의 모습 또한 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정형화된 틀 속에 실제 보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과 한 가족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자

라고, 상호 작용하는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맞벌이를 하는 가족이 늘었다지만, 여성 인권이 신장되었다지만, '가족'이라는 중성적인 사회 집단의 틀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사회적 성(Gender)에 기반해서 돌아가고 있는 '가족들'의 실제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논의의 한계 지점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논의는 두 가지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다. 첫 번째 문제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서로의 독립성이 완벽히 보장되는 가족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느냐이다. 이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족 속에서 우리의 변화에의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대안적인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당장 결혼식을 통해서 집안 결합을 확인하시려는 부모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막막함. 18세 독립론을 이야기 하지만, 20세가 넘어서 용돈도 제대로 못 벌고 부모님께 빌붙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들.....그리고 공동육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육아 비용이라는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맞닥뜨리면 자꾸 무기력해지려는 우리들.....주로 대안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오면 그 동안 신나게 해왔던 만지 걸기와는 달리 자칫 우울해지기 쉽다. 그러나 굳건한 기존의 사회 구조를 바꾸려던 행위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식의 좌절감은 언제나 찾아오는 법.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당하고만 또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친구끼리의 결론이었다. 단지 이런 논의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현실감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점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뿐.

한편 또 다른 문제점으로 가족 성원들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중요시 한 나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대하는 정서적 안정감, 친밀감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 가족을 읊아매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물리적인 가족의 기능들을 -가령 탁아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행위와 같이- 공적인

영역의 일들로 환원시키고 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이 어떤 식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살아 숨쉬는 가족 성원 개개인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과, 가족이 하나의 생존 공동체로서 작용면서 가족 성원들 서로 서로가 생활 속에서 부디 끼는 것이 배치되지 않으려면 어떤 식의 완충 장치가 필요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이어졌다. 가족 자체는 가족 이 대울로기가 재생산해내는 왜곡된 인식과는 달리 모든 것을 담보해낼 수 없고,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 사회가 만들어낸 '문화적 각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족의 정서적 기능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도 꿈은 지속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꿔 나갈 가족의 모습 속에서 어떤 식으로 그 정서적 유대감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한편에서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또는 결정론적인 측면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개인이 그 구성의 처음에서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특히 자녀의 입장에서 더더욱), 자신과 가족들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운명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이미 정서적 기능을 담보할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특히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 결정론은 또 하나의 '가족이대울로기'를 양산할 위험성을 지닌다. 오히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지금의 '가족'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의 바람막이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생존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느냐이다.

이에 우리는 '가족=최후의 보루'라는 또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개념을 우리 논의에 끌어들여 우리 식으로 소화해 내려는 많은 노력을 했다. 가령 '최후의 보루'라는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듯한 개념보다는 '살려내는 가족들'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살려내는 가족들'이란 공동의 생활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활 구성원들끼리 끊임없이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개념

이다.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가족의 모습에서는 지금에 비해서 가족 성원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 성원들에게 체감되는 시간은 결국 하나의 생존 공동체로서 서로에게서 책임과 의무, 안정감을 느끼는 심리적인 시간이라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함께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살려내는 가족들'로서 우리 스스로를 규정지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들 개개인이 살아 숨쉬고 자랄 수 있는 가족, 그리고 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를 살려낼 수 있는 가족..... 이런 생존 공동체를 우리는 우리들의 '가족'이라고 명명한다.

<미주>

‘가사 노동’ 中에서

1) 가사노동의 사회화: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의 하나. 이들은 여성들의 일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이라는 제도가 자본주의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어떻게 여성의 가사가 ‘진정한’ 일이 아닌 것처럼 경시되는가, 또한 어떻게 여성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가장 지루하고도 보상이 적은 일이 맡겨지는가를 주로 연구했다. 이들은 여성이 육아를 포함하여 힘든 가정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지 않는한, 노동인구로의 투입은 요원하다고 주장하면서, 요리, 청소, 육아의 사회화를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사의 사회화의 의미는 그것이 반드시 여성을 가사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열등하고 기생적인 인물로 여성을 억압하는 근거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2) 가사노동 임금제:

또 다른 맑스주의 페미니스트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하여 여성의 일은 모든 다른 노동을 위한 필수적인 상황이고 그리하여 잉여가치는 추출된다. 현재의 노동자들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위안, 가정적 위안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은 자본주의 기계의 룩니가 계속 돌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여성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사노동임금을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금이 반드시 급료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하

면서, 예를 들면, 모자가정으로 보조금을 받는 어머니에게 이들이 가정에서 행한 노동에 대한 보상비 형태로, 혹은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육아비 형태로 분배될 수 있다고 하였다.

3) 가정관리사의 육성:

한 가정의 가사노동과 가사경영을 책임지는 가정관리사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세미나중 도출된 의견이다. 가정관리사가 육성되면, 가사노동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가사노동이 전문화됨으로써, 기존의 성별분업구조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모두에게 열린육아를 꿈꾸며’ 中에서

- 4) 이 세 곳은 1998년 여름 ‘친구끼리’에서 여러 형태의 육아원을 비교해보고 보다 나은 육아 대리 공간을 찾아보기 위해 직접 견학한 곳들입니다.
- 5) 세 곳의 육아 비용 조사 역시 1998년 견학 당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청의 보조 지급이 끊겨진 것은 1999년에 공동육아원에 다시 연락을 해봄으로써 알게 된 것입니다.
- 6) 영육아보육법[개정 99.2.8] 4장 비용 제 21조(비용의 부담)
영육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복족>: 98년 그 이 후.... 친구끼리 2년 나기 활동일지

기간: 98년 여름

활동: 영화<처녀들의 저녁식사>를 보다

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들은 첫 방으로 꼬집김 화관관(?) 영화를 보고 매우 흥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었죠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각종 신문과 영화 관련 프로그램들에서는 '최초의 여성들에 의한 과감하고 쇼킹한 성 이야기'라 하며 범석을 덮어댔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난 후 내게 기억되어지는 것은 "야 임마 뭘 봐, 꺼져 매롱, 니 꺼나 쟁거"라는 흥미로운 가사의 노래와 몇몇 정사면, 사실 그다지 쇼킹한 내용은 없어 실망스러웠다. 사람들이 쇼킹하다 떠드는 그녀들의 대화도 내게는 매일 친구들과 나누는 함께 하는 익숙한 일상일 뿐. 여성주의를 논하는 듯 하면서 진화경의 알몸을 훑는 카메라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극과 극에 치우친 주인공들. 그래도 여성은 성욕조차 없다고 믿는 못 남성들에게 자극이 되었으니 감사해야 할까?..

기간: 98년 여름

활동: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봉근, 97레벨, 기하, 현민, 영희)과 함께 '가족이야기', '연애 이야기' 등의 폭넓은 통해서 서로의 삶의 고민들을 풀어내는 자리를 갖었죠.

기간: 98년 여름 - 가을

활동: 연애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방로 뛰는 친구끼리가 된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연애, 결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우리가 순차적으로(?) 겪는 삶의 과정들에 대한 실험적인, 생동감 넘치는 세미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죠.

- ▶ 자신이 꿈꾸는 연애, 결혼 등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도 써보기
- ▶ 결혼식 및 약혼식 비용조사, 문화 조사
소원연니 결혼한다고 행치고 '결혼문화연구원'라는 토탈 웨딩 서비스하는 곳을 찾아가 견적서 뽑아보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 ▶ 세 가지 형태의 보육원 직접 비교하기
'몬테소리 놀이방'과 '베이비 하우스'라는 사설 육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이라는 공동육아원을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는 기회도 있었었죠.

기간: 98년 겨울

활동: 제프리 위스의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라는 책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다

가족, 성, 연애, 결혼 등의 우리의 일상 속의 문제들에 대해 폭넓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그런 내용들이 일정하게 정리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책을 보면서 정리할 필요를 느껴 본 것이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였죠.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이란 것에 대한 기존의 시각인, 어떤 본질적 성관계의 형태가 존재하고 그 표출형태는 초도덕적 영역에 속하며 자연적인 것에 대해 반대하며, 성관계가 사회적 관계의 한 형태이며, 결국은 정치적인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런 성의 문제들은 최근 가족 생활에 대한 사회정책적 이니셔티브와 사회적 개입이 증대하는 것만 보아도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억눌리고 이용되어 왔던 기존의 성문화의 범주를 해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아야겠다는 의도와는 다르게, 성의 사회성,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하나 안게 되어 더 혼란에 빠지긴 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지게 한 책인 것 같다

기간: 97년 여름

활동: 페미니즘과 문화 정복시키다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를 보고 나서 맥이 풀린 친구끼리는 여름방학 특집(?)으로 각종 문화 매체들에 나타난 여성 문제를 짚어 보는 의미에서 예술 장르를 가로지르며 세미나를 진행했죠.

▶ 연극 <스와핑>을 보다

기 회

관극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성의식이 자리잡고있는 맥락을 이해하고, 연극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분석을 위한 텍스트로 공연내용, 분위기, 관객의 반응 등을 관찰하려 했다. 또한 성이 소통 가능한



주제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다.

- 대학로 마지막 골목, 열악한 환경의 소극장 (티켓박스 옆 벽기둥의 한마디 "끝내줘요!")
- 영성한 내용 (무엇보다 천편일률의 해피엔드/권선징악)
- 짜증나는 연기 (대사도 씹는 배우의 애드립이란.....)
- 공범자들의 모임 (뭔가 멋있하지 못한 사람들의 지하실)
- 감칠맛 나는 장면 (or 전혀 흥분되지 않는 장면)

평 가

(관극 후 적절한 토의가 불가능했던 것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느끼며, 그후 성담론이라는 것에 대해 나눈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적어봅니다.)

- Sexuality를 윤리적 가치판단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윤리적인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금기와 부끄러움과도 결합되어 있다. 그것은 (경험) 이전과 이후에 대한 구분을 만든다

- Sexuality를 개인의 손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소통을 전제로 한다. 그것의 몇 차례의 검열을 거치면서 관계 속으로 확장되지 못한다

- Sexuality가 우리를 함께 즐겁게 해주는가?

그것은 합리적으로 담론화 될 수 있도록 배려되지 않는다.

한 마디

가족이라는 성역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Sexuality는 우리의 침실 안에서 영원히 갇혀있을 것이다. 누가 우리의 보금자리를 움짖한 뒷골목에서 팔아먹는가? 누가 다른 사람의 보



금자리를 엿보길 원하는가?

▶ 박완서의 <서있는 여자>를 보다

우리가 옳다고, 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던 남녀 사이의 관계 설정이 현실적으로 '결혼'이라는 틀을 통해서 얼마나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소설을 이용하기로 했고, 소설 속의 연지 - 결혼 전부터 절대적인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이를 실천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국엔 자학적인 슈퍼우먼의 삶을 견뎌낸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 세미나 때 많이 언급했던 '남녀평등'에 대한 다른 식의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피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남녀 역할 분담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계속적으로 확인되는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친구끼리 사람들이 꿈꾸지 않았던 세미나였던 것 같다.

▶ 99여성 미술제 <팔쥐들의 행진>을 관람하다

우리는 99년 9월에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린 여성 미술제에 다녀왔다. '여성과 감수성', '여성과 생태', '섹스와 젠더', '제식과 놀이', '집 속의 미디어'라는 주제들로 구성된 팔쥐들의 행진은 여성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흔치 않은 전시회였다. 특별히 여성의 감성이 이렇다라고 정의하지 않더라도 여성인 나로서는 전시회장에서 내내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작품들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와 내용들은 페미니즘의 복수성과 차이를 보여주었다. 부드러움, 섬세함, 작음 등은 여성의 본질적인 감수성인가, 혹은 그것은 길들여진 모습일 뿐인가? 여성의 감수성이란 것은 실제로 있기는 한가? <영미 사진관>에서 카메라 앞에 서서 스스로를 대상화시키고 나르시시즘에 빠져보는 일은 무척이나 이색적이었다. <여성과 생태> 방에서는 생명의 다차원적인 그물망을 여성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볼 수 있었다. 홍현숙의 <은닉된 에너지>는 예술의 전당 지하 주차장에서 미술관 앞 광장에 이르는 계단을 흰 옷으로 감싸고 그 안에 흙을 채운 뒤 씨를 뿌려 싹을 틔우고 있다. 햇빛과 바람과 흙과 헌옷이 함께 어우러진 건강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섹스와 젠더>방에는 도발적이고 유머러스한 작품들이 많았다. 여자의 젖가슴과 남자의 성기를 만져보게 하는 정난영의 오락기계 앞에서는 모두가 민망해하고 재밌어했다. 박영숙의 <미친년(美新蓮)들>도 인상적이었다. 여성 작가에게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늘 어려운 과제인 줄만 알았는데 "팔쥐들의 작품들"을 보니, 달리 보면 그것이 가장 즐겁고 자연스러운 일이겠다는 생각을 했다.

▶ 영화<무리엘의 웨딩>을 보다

결혼에 대한 환상과 기대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여성들에게도 적용되는 모양이다. 무리엘은 꿈같은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보잘 것 없고, 별볼일 없는 현재에서, 신데렐라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깨워준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지만.

여전히 여자들은 결혼식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가,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며칠 전, 신문에서 본, 웨딩물럭션은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문구 "오늘 하루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된다"와 어쩔 그리 똑같은까-그리고, 여자팔자는 뒤웅박팔자라는 말도



나이가 들면서, 내 귀에 더 잘 들어오는 듯하다. 내 삶을 규정하는 말들이 난무함을 느끼면서, 한결, 중요한 것은 여성으로서의 나를 찾아내고, 키워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타자들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은 자아의 정신분열증을 피할 수 없을 테니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나만의 욕구, 희망, 꿈들을 발굴하고 당당히 밝혀내는 것이 나의 성 정체성을 사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간: 99년 초가을

활동: 영화<가족시네마>를 보다

친구끼리의 성취·이었던 기하가 나가고 선희가 새 시기로 들어왔죠. 선희와 함께 <가족시네마>를 보고 다시 한번 '가족 이야기'를 쓰게 되었죠. 다시 쓰는 가족이야기지만 이번에는 매우 상상치 않네요!! 폭풍이 되었죠. 왜냐구요? 이 '가족이야기' 자료집이 나오는데 초석(?)이 된 폭풍이니까.



우선 이 영화를 본 나의 느낌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황당하다", "습습하다" 정도이다.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이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의 분리된 생활은 가족 안에서도 극명하게 이어진다. 이 영화는 이러한 현대의 파편화된 가족을 카

메라 앵글에 담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데, 그것은 관객들이 기대하는 가족의 화해가 아닌 가족 파괴의 현실이다. 나도 처음에는 영화촬영을 위해 2년만에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이 영화 제작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게 될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이 영화의 가

족들은 마지막까지 영화 시나리오마저도 자신들의 현실에 맞추어 비판적인 결말을 맺는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이에 따라 가족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제껏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미 사회는 가족을 하나의 이념이나 사회적 가치로 묶어놓을 수 있는 체계를 잃어가고 있다. 개인의 삶이 중시되는,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가치가 더 높은 수위에 이르는 사회구조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영화는 새로운 시대 위에 없어질 가족상을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꽤 현실적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기간: 99년 가을

활동: 다이애너 기틴스의 <가족은 없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가족'에 관한 세미나를 굴리다

우리의 세 번째 자료집을 만드는데 너무나 엄청난!! 영향을 끼친 <가족은 없다>를 읽고 세미나를 하는 중에 그 동안 우리가 발로 뛰면서 또는 이런 저런 매체들을 통해서 논의했던 문제 지점들을 또박또박 다시 짚을 기회가 생겼죠. 중간중간 조한혜정 교수님께서 쓰신 글들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남성중심 공화국의 결혼 이야기1,2」 등을 읽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죠.



우리가 조금 잡았던 커리는.....

결혼/ 부부관계/ 부모자식간의 관계/ 가사 노동/ 육아/ 한국 사회의 가족 변천 모습/ 대안 가족 및 가족 관계에 대한 재설정 이었다.

편집후기

나에게 있어 친구끼리 활동은
여성으로서의 자아찾기의 과정이었다.
타인에 의해 여망되고, 대극되어왔던
여성성을 찾아내는 것은 20여년 나의
인생경험 중 소중한 것 중의 하나다.
앞으로도 여러 분의 목소리 내기가 활성화되기를
"감동" 바란다.

이 가족집을 나의 가족, 그리고 나에게 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치고 싶다.

"엄마, '가족'은 없다" 라고 말하지만, 내게 가족이란 소중한 사람들이
없는 것" 이라고 내게 말하던 여학생, "넌 정말만 그러지 말고,
집안에서 직접 행동으로 내가 가족들이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실행해 보렴" 이라고 하시며, '가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한
머리는 내게 소중한 것을 대미치셨던 부모님.
그리고 함께 새로운 가족상을 꿈꾸며 친구끼리 사람들...
복귀의, 최영미, 김혜영연니, 영희, 성희, 황혜트바,....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성희연니, 권희연니...

'가족'이라는 부분을 내 안에서 재해석하기 않으면
내 삶의 지체성을 찾아 나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내가 이 가족집에서 끝내낸 고민들을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난 포기하지 않을 거다.

왜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다.

- 김혜영연.

친구끼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이급적이었던 건,
엄마랑, 아바랑, 누나랑 좀 행복하게 살기위함은
이야기하러 모임에 가는 것조차,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아픔을 준 것 같다는 것이야.
후에, 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했을 때,
친구끼리의 많은 비용들은 생활 속에 부릴 수 있는 거를
전혀 바라보지 않았다. 자초집은 전적으로 엄마에게 주고 싶었어.
친구끼리에 엄청난 모든 사랑들에게 고맙다는 말
하고 싶다.

한 학기 동안 '친구끼리'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여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가르쳐 준
'친구끼리'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ssiny ♥

'동행'이란 동행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상급하는 생각이며 돈다.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귀찮음을 드러내며
3번째 자로집을 준비하는 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듯 하다.
이 자로집을 통해 무엇 얻을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건 처음 시작할
무렵이나 지금이나 그다지 변한 게 없지만
어쨌든 지난 1년 뭔가 한 게 있다는
착각에 뿌듯함이 느껴지는 건... 너무 뻔뻔한가?

가족 ... 일년 넘게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자로집을 만들기까지 계속된 우리의 한두.
그러하여 나는 많이도 새로워진 것 같다.
솔직히 결혼을 앞둔 율연니에게, 엄마 아버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
나의 가족문화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합의한
역동적인 가족이며 살려내는 가족상이 다 무언지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돈된 생각과
대화과정 자체가 의미있는 과정이었음을 알 것 같다.
친구끼리 멤버들, 고맙습니다.